

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

- 브리퍼 :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세요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.

< 2. 5차 오염수 방류 종합 >

① 5차 방류 현황

□ 도쿄전력은 어제(5.6) 21~22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함으로써, 지난 4월 19일에 시작된 5차 방류분(batch)의 방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.

○ 이어서,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, 5차 방류가 모두 종료됩니다.

② 5차 방류 데이터 종합

□ 이번 5차 방류 기간에는 총 7,827세제곱미터(m^3)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,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6,946억 베크렐(Bq)이었습니다.

○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(l)당 187~266베크렐(Bq)로, 배출목표치인 리터(l)당 1,500베크렐(Bq)을 밑돌았습니다.

- 다음으로, 해수 취수구에서는 5.5~7.7cps, 상류수조에서는 4.1~5.2cps,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.8~6.3cps가 방사선감시기에 측정되어, 방출이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.15세제곱미터(m^3),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,729~15,128세제곱미터(m^3)로 기록되었으며,
-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매시간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
- 또한, 5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, 방출 중단 기준*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* (0~3km 해역) 700Bq/L, (3~10km 해역) 30Bq/L

③ 5차 방류 중 특이사항

- 이미 브리핑(4.25)을 통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, 지난 4월 24일 10시 43분경에 굴착작업 중 실수로 전원 일부가 상실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방류가 중단되었고,
- 도쿄전력 측은 방류 설비 점검과 전원 복구 작업을 마친 후, 당일 17시 16분경에 방류를 재개하였습니다.

- 우리 정부는 방류 중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본 및 IAEA와 상황공유를 통해, 방류 중단 및 재개 시 특이사항이나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< 3.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>

- 다음으로, 지난주 월요일(4.29)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,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.
 -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, 5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.
- IAEA는 도쿄전력 측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이었음을 언급하였으며,
 - IAEA가 해수배관헤더 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
- 또한, IAEA는 전원 상실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도,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류 관련 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설명하며,
 - 도쿄전력이 설비 점검을 거쳐 방류를 재개한 이후,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.
- 이상입니다.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5월 7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,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체*와 유통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2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.

* (검사건수 상위 5개 품목) 넙치 4건, 꽃게 3건, 용가지미 3건, 임연수어 3건, 갈치 2건

□ ‘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’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국내 생산단체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, 399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* 5월 1주차 신규 3건 추가 선정(고등어, 넙치, 갈치)

□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
○ 5월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□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,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,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-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5월 7일 기준,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·중문, 전북 변산·선유도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4월 3~4주(4.15~4.26)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

□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5개지점, 남동해역 5개지점, 서남해역 1개지점, 제주해역 1개지점,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.
- 세슘 134는 리터당 0.061 베크렐 미만에서 0.089 베크렐 미만이고, 세슘 137은 리터당 0.062 베크렐 미만에서 0.087 베크렐 미만이며, 삼중수소는 리터당 6.3 베크렐 미만에서 6.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.

* (^{134}Cs) <0.061~<0.089Bq/L, (^{137}Cs) <0.062~<0.087Bq/L, (^3H) <6.3~<6.9Bq/L

-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,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'안전'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
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

- 브리퍼 :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.

< 2.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>

□ 도쿄전력 측이 지난 금요일(5.3)부터 어제(5.6)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2일에 10개 정점, 5월 3일에 4개 정점, 5월 4일에 4개 정점, 5월 5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,

○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(ℓ)당 700베크렐(Bq)*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.

*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: <5.0(검출하한치 미만) ~ 29

□ 아울러, 도쿄전력이 지난 5월 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중 리터 당 29베크렐(Bq)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,

○ 일부 언론에서 해당 수치가 '검출하한치를 초과'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

- 다만, 그간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, ‘검출하한치’는 방사능 검사장비로 측정가능한 최소한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, 안전기준이나 방출기준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.

- 도쿄전력이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전에서 3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700베크렐 (Bq), 3~10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30베크렐(Bq)입니다.

- 이번에 3km 이내 해역에서 관측된 리터당 29베크렐 (Bq)의 삼중수소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과 비교하여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.

- 이상입니다.